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 읽을 말씀 계 7:9-17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십사만 사천 명이 유대인 중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깨달음과 예상되는 반론들을 살펴봄으로 이 해석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1)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과연 누구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창 22:18)” 라고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천하 만민” 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은 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휴거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 라는 표현으로도 뒷받침이 됩니다. 이들은 열방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와 똑같은 의미인데, 이 구절은 휴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정체는 휴거한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2) 휴거라면 왜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는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는데(계 7:9), 휴거한 자들은 어린양 앞에만 섭니다. 휴거는 공중으로 끌어 올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 땅에 내려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휴거한 자들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휴거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휴거된 사람들이 받을 궁극적인 복’ 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일치하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거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내용

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거의 장면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왜 혼합해서 보여주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7년대환난 직전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한 성도들이 휴거해서 누리게 될 영생복락을 기억하고, 다가올 모든 핍박을 승리하라고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휴거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생복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다는 표현 때문에, 그 곳을 요한이 올라갔던 천국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땅에 임한 보좌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9)”,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14)”이라는 표현은 수직적인 이동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동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도 그 곳이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신천신지에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휴거한 사람들이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묘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3) 손에 왜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14)” 합니다. 그리고 흰 옷은 그들이 이기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3:4-5). 그러므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손에 든 “종려 가지” 는 무엇을 뜻할까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에는 종려 가지를 사용하고, 추수 후에 지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영적으로 지상 교회의 추수 즉, 휴거가 된 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상징합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자들은 영적 초막절에 참여한 자들로, 휴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긴 자들이고, 가장 복된 자들이며,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4) 이들이 휴거한 사람들이라면 왜 7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통과설이 옳기 때문에 휴거는 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7장이 삽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시간순을 초월한 이런 삽입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때 교훈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6장의 6가지 인은 말세의 징조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었으니 그때부터는 두루마리의 내용, 7년대환난입니다. 그래서 7년대환난을 통과해야 할 모든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도전을 주기 위해 끝까지 이기고 휴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되는지 시간과 무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시대’ 나 ‘주제’ 전환이 있을 때,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한다거나, 앞으로 설명할 것의 절정부분을 먼저 말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장 9절 이하도 7년대환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절정인 휴거한 자들이 누릴 영생복락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을 앞당겨 보여준 것이므로 착각하지 말라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이 현재시제이므로 휴거하는 자들이 누릴 복이 아니라 휴거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의 헬라어 ‘에르코메노이’ 는 ‘현재 명사적 분사’ 로 현재시제이지만, 헬라어 분사나 동사는 분명한 시제의 의미가 없으므로,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로 현재가 아닌 과거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휴거하는 장면이 아닌 휴거한 자들이 누릴 복락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은 “휴거한 사람들이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아닌데, 왜 장로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했느냐?” 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휴거한 자들을 보여주되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산 자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생존해 있을 사람을 중심으로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20장 4-6절인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4)”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환난 때 순교한 사람만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까요? 아닙니다. 그 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라고 한 것을 볼 때 휴거한 모든 성도들이 왕 노릇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재림 때 휴거한 모든 신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왕 노릇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천 년간 왕 노릇하십니다. 그들은 재림 때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천 년간 왕 노릇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증거는 더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예언입니다(단 7:18-22).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원한을 풀어주실 때 나라를 얻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천 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둘째, 므나 비유입니다(눅 19:11-19). 여기서 ‘귀인’ 은 예수님이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것’ 은 재림이며, 이때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각자 충성한 것에 따라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 네 생물과 24장로의 노래입니다(계 5:9-10). 여기서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대환난 때 순교한 사람들만 왕 노릇하는 것처럼 기술했더라도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영생복락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끝까지 이기고 휴거하여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선택하며 얻게 된 교훈들을 나누어 봅시다.